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기도에서 기도로

(시편 4:1-8)

시편 4편의 역사적 배경은 시편 3편과 같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시인은 잘못된 길로 간 아들 압살롬과 그와 함께 간 이들이 회개하고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방패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4편에서는 악한 자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물리적 구원 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이들은 시편을 찬양, 애가, 감사, 확신, 기억, 지혜, 메시아 왕권 등 7개의 장르로 구분하는데 이중 시편 4편은 다윗의 개인적 애가와 믿음의 확신이 합쳐진 시입니다.

1. 번뇌에서 평안으로

시편 4편은 자기 죄를 의식한 참회의 시가 아니고 무죄한 자와 압박 받는 자의 번뇌, 또는 의롭기 때문에 고난 받는 자의 고통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히 의롭다거나 무죄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수들이 말하는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일뿐 다윗에게는 또 다른 면에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무죄는 악한 자의 공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죄하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덴 시민들은 정의를 부르짖던 Aristides(BC 530-BC 468)를 저주하며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사는 그를 그 당시 그 나라가 배출한 가장 빼어난 정치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istides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정의를 외치는 것에 시민들이 피곤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단번에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1절).

이것은 순수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열정적으로 항의하는 연설을 합니다(2-5절).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말합니다(6-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8절).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도 평안히 자겠다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매일 이 같은 일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 호소하다

만일 우리가 부당한 공격을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마도 친구를 찾아가거나 지인에게로 가서 동정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원수를 공격하는 대신 하나님께 항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다윗의 호소는 정직했습니다. 자기 형편을 세밀하게 알고계신 하나님께 가감하지 않고 정직한 보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만한 의로운 일은 무엇보다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의의 제사이고 믿음입니다.

그의 호소는 균형 잡힌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이 불의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의의 근거 위에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불의를 넘어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호소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에 비하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었습니다.

3. 원수들에게 호소하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3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 뿐 아니라 원수들도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임을 원수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원수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을 발하시어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자를 돌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4절).

이 말씀에는 화를 내므로 범죄 하지 말라는 뜻과 죄의 가능성을 깨달아 범죄 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범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70인역 성경에서는 ‘분내어 범죄치 말라’고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엡 4:26)고 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5절).

이 말씀은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로서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만한 의로운 일은 무엇보다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의의 제사이고 믿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6절).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맞본 다윗은 그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무엇보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을 누리게 될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위한 2005년 열린바자

9월7일(수)-9일(금) 3일간

우리교회 2005년 열린바자가 9월7일(수)-9일(금)까지 3일간 열린다. 올해 바자는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위한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헌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바자에 성도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각종 물품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심정으로 출품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헌신해야 할 것이다. 바자가 열리는 장소는 서울교회 1층 로비와 앞마당 그리고 8층과 한티공원을 사용한다.

바자에서 판매할 상품은 의류, 잡화, 가구, 가전

<조직>

· **대외장:** 이종운 목사 · **지도:** 한상은 목사 · **위원장:** 노문환 장로

부서	부장	차장	실행위원
기획부	임상현	홍창배	최차순 김복승 이강인
재정부	김영준	송인권	양춘경 홍일성 김경희 정경자
판매관리부	조정식	우지원	이계홍 정동호 강두현 오승민
시설부	이관규	오광환	한길동 김현영 윤운식 유근중 이인근
섭외부	신용식	우상태	이양철 최규조 이종창 박경우 장덕
홍보부	전기철	김급준	정인주 유기찬 신동기

제품, 식기류, 장난감, 학용품, 악기, 서적, 테이프, 컴퓨터 및 주변제품, 운동기구, 침구 및 수예품, 식품, 부동산, 회원권, 상품권, 증권, 도자기, 미술품, 귀금속과 위탁상품, 농수 특산품이다.

<개장시간>

9월7일(수) : 12:30 - 18:30
9월8일(목) : 10:00 - 19:00
9월9일(금) : 10:00 - 19:00

<점포담당>

판매장	지도	점포장	영업부장	총무부장
1점포	이규정	서경화	윤명규	이인숙/안미경
2점포	이규정	한주찬	이동만	이윤희
3점포	이태훈	김영주	이찬호	김유경
4점포	이태훈	조철기	김규태	박미혜
5점포	오정식	최소희	이승래	남옥진
6점포	오정식	장양일	김시환	윤숙희
7점포	이성득	김종윤	이상호	한성옥
8점포	이성득	이동권	강남훈	김정운
9점포	이용식	유 신	이남성	박재숙
10점포	이용식	김재근	김경희	박연순
11점포	한상은	이승우	오지열	유승인
12점포	한상은	오형철	최광성	위성남
13점포	유영국	조동완	김은태	이순희/김인숙
14점포	유영국	차도훈	한광마	김진희
특판	한상은	탁경준	유은상	정효자

28학기 목회자 세미나 준비시작

17일(수) 안내 팸플릿 일제 발송

2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가 금주부터 본격화 된다. 금주는 지금까지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한 전국의 교역자들에게 2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안내 팸플릿과 순례자를 동봉하여 17일(수)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전도와 선교'를 주제로 열리는 금번학기에도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200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지난 7월31일자 순례자에 발표된 2005학년도 2학기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김복녀 권사 장학금은 본인의 요청이 있어 브리스길라 장학금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였다.

2학기 장학생들은 반드시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받아야 한다.

중등부: 김명현, 박노영, 유희상, 이선우, 최혜진
고등부: 고요한, 김진영, 박유나, 박한샘, 송형호

최인애

대학부: 강혜주, 김민옥, 김지연, 박성우, 조광희
디아스포라부: 오태봉, 조미향

브리스길라 장학생: 손재영, 서흥위

광야의 소리

자녀들은 순종이 때에 사무쳐야...

이영수 장로 (12교구)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로 보람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녀의 마음에 미래를 그려주며 늘 기도하시는 학부모님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안식년을 맞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진된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각자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머물던 산호세시에 있는 동네 산책길 공원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노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천진난만한 모습의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업시간이 시작 되면서 일어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날도 시간이 되어서 스피커에서 호각소리가 울리자 뛰놀던 학생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를 하고 울리는 곳을 향하여 서는데 한 학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학교 운동장에 정적이 감도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서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부자가 울리니 일제히 교실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광경은 그 다음날에도 계속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 뒤에 알았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저 약속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순종의 기초 훈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종 전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민족이 섞여 살고 개인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다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대보다 더 질서 있고, 공권력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어릴적부터 작은 약속과 규칙을 철저히 훈련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교육 현실은 오직 지식만 주입시키는 기계로 전락했음이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넘치는 이 나라에 "사람다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며 탄식하는 사장님이 많고 공직자 뿐 아니라 심지어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

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높은 학력의 인력은 넘쳐나도 사람됨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자녀 성적이 뛰어나다는 소문에는 민감하면서도 누가 더 정직하고 성실하느냐 에는 관심이 없는 오늘의 세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부모와 선생님께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인격자요 신사와 숙녀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방학을 맞아 사랑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므로 자녀로 하여금 복의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지기를 소원합니다.



광복 60년의 단상

믿음의 돌비석과 광복 60년

제 2의 광복을 바란다



고영신 집사
(1교구, 언론인)

광복 60년, 사람으로 치면 환갑의 나이요, 귀마저 순해 진다는 이순(耳順)의 연륜이다. 요란한 각종 기념행사가 줄을 잇고 있지만 국민들은 감격과 희망보다는 답답하고 허전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광복 60년을 맞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오늘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가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 내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준 결과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문제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우리가 과연 경제성장에 걸맞은 정신적, 도덕적 성장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를 건설했는가.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성장의 그늘 속에서 득버섯처럼 자란 부정 부패와 물질만능, 퇴폐와 향락, 사치와 낭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 큰 물의를 빚은 광란에 가까운 알몸공연 사건은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 준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X파일'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추악한 불법도청과 정치권, 언론, 재벌의 파렴치한 야합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고도 우리가 소득 2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둔 선진국이요, 성숙한 문명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한 채 반쪽 광복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다. 전쟁과 분단이 빚어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화해와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온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에 전전긍긍하면서 김정일 달래기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념의 혼란상이다. 진보 대 보수, 반북 대 친북, 자주파 대 친미파, 한미동맹 대 민족공조 논란 등 갈수록 이념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 자유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멀쩡한 대학교수가 6.25를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을 원수로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 국가 지도자, 사회지도층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지도자들이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고사하고 얼치기 개혁을 앞세워 끝없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정략적으로 편을 갈라 상호 반목과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북한의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폭론분열이고, 우매한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상실이다.

요단강 도하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써 준행할 때는 나라가 부흥하고 백성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통치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위상을 섬기고 타락한 행위를 행할 때는 어김없이 큰 벌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 사사시대 이방민족의 억압과 유다왕국의 분열이 그렇고, 70여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생활,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2000여년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망국의 한을 달래야 했던 역사가 증명한다.

지금 우리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진정한 민주국가,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춤추고 난장판을 벌이는 요란한 광복절 축제행사가 아니다. 광복 60년의 진정한 의미는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가 우러러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국가지도자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독선과 야질, 오기와 슬수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올인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준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이 겪은 슬한 고난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물질적 풍요에 취해 방종과 타락, 퇴폐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복한지 6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백성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우리 신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교회가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앞장섰는가. 오늘의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실만한 물가인가.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곳인가. 바알과 아스다롯 대신 현대판 물신(物神)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남북이 하나 되고, 7천만 민족이 화합하는 제2의 광복을 바라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의 돌비석, 믿음의 돌기둥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은 우리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 도하(渡河)사건은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간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요단강변에 도착, 여호수아의 지휘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도하작전에 돌입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던지자마자 도도히 흐르던 강물이 딱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땅같이 건너 젖과 같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 명하여 요단강에서 들 열두 개를 가져와 기념비를 세운다. 애굽을 떠난 뒤 겪은 수많은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다. 또 이를 후손들에게 전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구원의 표정으로 삼고자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요단강을 건널으로써 떠돌이 민족이 비로소 터를 잡고 본격적인 독립된 국가건설,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나선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36년에 걸친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났다. 해방 이후 슬한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가 놀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50년대 초와 비교하면 국민 1인당 GNP는 최빈국 수준이던 67달러에서 1만2천6백46달러, 13억 달러이던 국민총생산(GDP)은 6천52억 달러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데는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과 성실성, 끈질긴 노력의 결과



한민에게 전도 - 2005 농촌 전도대 보고

주님(主)만이 하늘(天)인 마을



10일 오전 9시. 이번 농촌 전도대는 교육찬양분과, 취사분과, 의료분과, 전도분과, 홍보분과, 시설분과로 총 6개 분과로 나뉘어 각 맡은바 소명대로 3박 4일간의 전도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분과는 무더운 날씨에도 주천일대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찾아

올해 농촌 전도대가 봉사하기 위해 떠난 곳은 주천(酒泉). 술 주(酒)자에 샘솟을 천(泉)자를 쓰는 이곳은, 특이한 이름 덕분에 술 익는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굽이치는 주천강과, 번두리 농가의 논, 밭. 그리고 대토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아담한 시내 상점가. 농사를 주로 짓는 농촌마을이지만 이제까지 농촌전도대가 찾아갔던 두메산골의 몇 백 명 남짓한 산골 벽치와는 사뭇 달라서 '정말 이곳이 농촌전도대가 필요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주민이 4000명 남짓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마을 대대로 믿어왔던 불교가 마을 주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안식교, 여호와증인 같은 이단이 침투해, 이미 많은 주민들을 잠식하고 있어 복음전파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서울교회 농촌전도대를 보내신 이곳은 정말로 위태롭고, 복음이 다급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농촌 전도대가 봉사지역으로 떠난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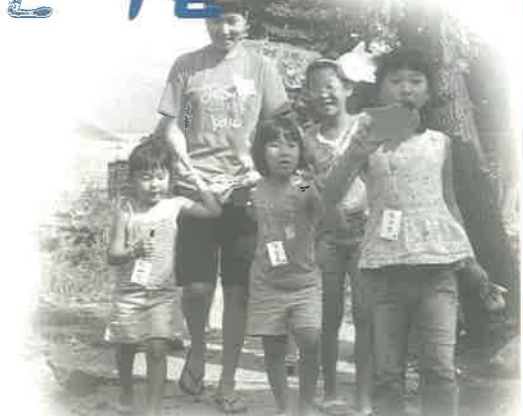
들었습니다. 의료분과는 이렇게 찾아온 지역주민에게 침, 뜸, 부항 등으로 의료봉사를 행하면서 사이사이에 전도팀이 복음을 전해 주님을 영접케 했으며, 취사분과는 교회를 찾은 모든 주민에게 잔칫상처럼 마련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떠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청년이 주축을 이룬 교육찬양분과는 주천제일교회 본당에 자리를 잡고, 현지 아이들을 모아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간 알찬 프로그램은 성경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의 신앙의 뿌리를 강하고 깊게 자라게 해주었으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교회의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되고 연합된 전도작전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 전도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19곳에 달하는 교회가 있어, 각 교회별로 있었던 이벤트성 전도행사도 인해 마을 주민들이 전도대의 전도행사에 진부함을 느끼는 점도 복음전파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교회의 봉사 가능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도대가 떠난 후에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침이면 맑은 산안개가 드리워지는 이곳, 아이들의 웃음이 해맑은 이곳 주천이 모든 주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술(酒)이 샘솟는(泉) 마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늘(天)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주명 (편집부)

<교회단신>

-파이프 오르간 조율-

독일 클라이스 회사에서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 조율을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시행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는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린다.

-15기 전도학교 접수중-

지원자는 사무국으로 접수하기 바란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주제의 산학세미나를 한기총 신학위원회 주최로 19일 개최한다.
- 김운호 목사가 개인사정으로 8월7일자로 사임했다. 김 목사께서 하던 모든 사역을 이태훈 목사가 대행한다. 단 장년부 지도는 황선철 목사가 맡는다.
- 이사: 김응수 운영팀 집사 가정(11교구) 파주시 금촌동 서원마을 프란체@
- 주간 식당 등사: 루디아 여전도회 (8월14일) 비비여전도회(8월21일)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복음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J.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 · HJ.KX 105.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가지 행사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4. 청년부 · 신혼가정부 · 장로부부 수련회 위하여
5. 공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는 국가 · 사회 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오시는 길

